



불서읽기 캠페인

연화장 세계 표현하는 일생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은 홍점석 선생. 오늘도 제자들에게 "단청 채색은 예쁘면 그만이지 아니라 반세기를 열두해 색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한다. 주변 공간과 조화가 단청의 생명임을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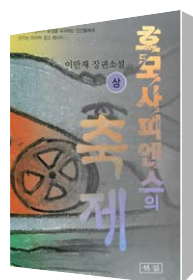
연화장 세계와 단청
홍점석 · 송인정 지음
디자인 나경 펴냄 | 비매품

이 시대 단청의 맥을 이어 온 산 증인으로 근50여 년 동안 이어 온 노화원(老畵員)의 철수를 기념해 출간된 작품집이다. 단순한 장식미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화장 세계의 미묘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일생의 화두가 오롯이 담겨있다.

<연화장 세계와 단청>은 한국 사찰의 고유한 장엄의 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다. 연화문을 중심으로 펼쳐진 단청 작업은 신앙적 체험과 함께 구도자의 면모를 스텝업이 드러낸다. 홍점석 선생의 작업 세계를 단청계로의 입문 과정부터 전기를 서술하며 제자 송인정에 의해 스승의 단청문양에 담긴 정신과 기법의 논지를 심화한다.

가연숙 기자

다람쥐가 본 사람들 세상



생각하는 인류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인간관이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의 축제>는 이러한 이성관을 가져들이지 못하여 버린다. 인간에 의해 포획돼 애완동물센터에 밀려들어난 다람쥐의 시선으로 비정한 도시를 투사한 소설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축제 · 下
이만재 지음/석필 펴냄 | 각 1만2000원

작가는 고인 물을 거부한다. 현실 고발의 작가 의식은 인간의 사건이 다람쥐를 통해 투사되면서 현실적 서사가 인간의 윤리 규범 위에서 비판적으로 형상화 된다. 세속적인 삶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자의적인 강요로부터 일탈을 시도한다. 흐릿한 미래 예감으로부터 미지에 열매인 없는 세계를 꿈꾼다.

<호모사피엔스의 축제>는 환경 소설의 새로운 시도와 역적으로 평가받는다. 순수성과 대중성을 혼합한 중간 소설로 영적 세계와 단군 사상을 표상화한 획기적인 발상과 만난다. 오늘날 직면한 과학적 사고와 인간중심주의적 인식의 편향성으로부터 해방을 시도한다.

가연숙 기자

본래 성품 깨우치는 경전

법의 실천적 측면서 이타의 역할 강조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이다.

중생이란 여래장인 법인이 한량없는 번뇌에 얽매어 있을 때 다만 일컫는 호칭일 뿐이다. 여래장 사상에 의하면 중생은 본래 붓다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러나 씨앗을 알 수 없는 두터운 무명의 미혹에 뒤덮여 해탈의 활로는 찾기 어렵다. 대승불교 정신을 한 권에 농축해 미로와 같은 인생 정각의 행로에서 해매는 수행자로 하여금 자성의 본래 성품을 깨우치도록 하는 경전이 있다. 바로 <여래장삼부경>이다.

<여래장삼부경 강설>은 해인사 강주로 무영스님이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경전공부'를 통해 소개한 <승만경>을 중심으로 한 여래장삼부경 강의'를 글로 엮은 것이다. <여래장삼부경>은 성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수행에 매진하도록 한다. 본문의 번역은 직역을 기본으로 하되 비유와 해설을 통해 제차 이해를 돕는다. 각 경전을 서본·정종본·유통본으로 구성된 소주제에 따라 세부화함으로써 각각의 체(體)·상(相)·용(用)을 모색한다.

<여래장삼부경>은 금강해 보살이 법을 물으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형식이다. 법설은 최상근기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리로서의 법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 유통본에서는 부처님의 성불에 관한 인연설화를 이야기 하면서 모든 이가 여래장을 지닌 바를 아홉 가지 비유를 통해 전생 인연으로 보이며 자비방편을 행한다. 더욱이 법의 실천적 측면에서 이타의 역할을 강조하며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승정신을 드러낸다.

<승만경>은 재가 불자인 여성이 설법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경전의 제목을 풀어보면 승만부인이 일승대방편의 뜻을 사자후하는 경전이라는 의미다. 당시 인도의 시대적 배경과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여성성불론'의

저본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래장을 비증있게 다룬다.

<부증불감경>은 여래장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을 담는다. 무엇인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다스림을 전한다. 산스크리트 본과 티베트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전으로 <구경일승보성론>에 일부가 인용됐을 뿐 전체 판본 없이 한역본만 남았다. 중생계는 여래장이고 여래장은 여래의 법신이라는 핵심으로 하나의 본질 세계를 밝힌다.

무영스님은 강설을 마치며 '대승지관법문' 계승으로 여래장 사상을 매듭짓는다. '여래장은 본성을 따르거나 거스르는 성질 모두 갖추고 있어 번뇌로든 지혜로든 업에 따라 성인과 범부가 되네. 이것이 수행의 인연이니 속히 지관업을 닦아 청정한 공덕을 이루라'고 거듭 당부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여래장삼부경 강설

연담 감수 | 무영 강설/운주사 펴냄 | 3만8000원

'최상승법문' 쉽게 재미있게



부처님49년여의 설법이 대승 정신으로 되살아난다.

실상의 미묘한 법성을 연꽃에 비유해 밖으로만 가지 경계에 통달하며 일심을 다독인다. 독실한 신행활동으로 모범을 보여온 김진철 법사(법화선원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
법화선원 마하사 발간
법화원 펴냄 | 10만원

마하사)가 <한자품이 법화삼부경> 사본 전 14권을 묶어 한권으로 출간한데 이어 난해한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계한 해·일어 집주)을 번역했다.

대승불교 초기 경전의 하나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진실한 연꽃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다. 법화(法華)의 뜻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에 비유한 말이다. 법화부 경전은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민족들에 의해 수지 독송되는 대승경전 가운데 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은 <묘법연화경>과 계한 소(疏)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일어(一如)의 집주를 한 문 그대로 엮은 것에 고어(古語)를 현대문으로 손보았다. 역자의 8년여 간 공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일승도(一乘道)의 공덕일 것이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3	신심	해인	클리어마인드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이와 같이 싶으면	무비	연화실
6	원력	해인	클리어마인드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며	김일수	도피안사
9	붓대를 기억하는 사람들	김광하	운주사
10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도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을 개인지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조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선) 동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9월 18일 목요일만 •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략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